

일본·한국·자이니치 코리안 젊은이들의 15년 발자취를 그리다
- 영화 「할아버지를 파다」 -

2014년 2월 24일

가게야마 아사코(影山あさ子, 영화감독)

1997년 여름 홋카이도(北海道) 호로카나이(幌加内)정(町) 슈마리나이(朱鞠内)에 일본·한국·자이니치(在日) 코리안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 우류(雨竜)댐과 메이우(名雨)선 철도공사에서 목숨을 잃은 조선반도 출신 강제연행,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기 위한 동아시아공동워크숍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슈마리나이, 사루후츠(猿払)촌(村) 아사지노(浅茅野), 아시베츠(芦別)의 발굴, 한국에서의 강제연행 피해자와 유족조사, 유골의 반환으로 젊은이들의 만남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어 갔다. 이 15년의 발자취를 그린 9시간 9분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할아버지를 파다」이다.

지금 이 원고를 쓰고 있는 2014년 2월에도 눈 쌓인 슈마리나이에 1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모여,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참가하는 고교생 워크숍이 열리고 있다.

1997년 첫 번째 워크숍에 참가한 나 역시 사무국의 일원으로 슈마리나이에 있었는데,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땅 속에서 잊혀져 온 강제노동 희생자의 유골이 지상으로 나옴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보면 그 순간을 기록하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나는 영화감독이 되었던 것이다.

언어와 민족, 받아들인 교육도 달랐지만, 함께 밥을 들고, 밤을 새워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자는 것도 잊은 채 우리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대방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하기 힘들었고, 자신의 생각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지만, 그곳의 열기와 카오스는 폭발적이었다. 당시에는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한국. 그리고 자이니치 코리안의 존재. 지금 눈 앞에서 드러나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신들과 연결되기 시작한다.

대나무 숲 아래에서 잊혀진 존재로 방치되어 온 유골과 발굴을 통해서 만났을 때,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땅 속의 작은 구멍에 포갠 듯이 억지로 구겨 넣어진 유골의 모습에서 강제노동의 실태가 드러난다. 자신의 손으로 유골을 발굴하고, 유골을 앞에 두고 큰 소리로 우는 어른을 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일본인을 보고, 이들 하나 하나가 자신의 체험으로 마음에 새겨져 간다.

이번에 제1장을 편집하면서 15년 만에 당시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 한국 젊은이들은 이렇게까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왔었구나 또는, “지면 안 된다.”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단순히 국제교류라고 생각했던 일본 젊은이들의 순진한 마음이 면박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다. 한국인 참가자들도 도전적인 마음으로 왔지만, 일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평범하고, 함께 놀고 즐겁게 술을 마시며, 이렇게 금방 일본인과 친구가 되어도 좋은가?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알고 싶다. 일본인, 한국인, 자이니치 모두가 자신의 세계에는 없던 그 무엇과 만나 좀 더 넓은 세계를 본 순간을 공유한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것들이 있었기에 좀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만남이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렇게 만나는 것은 정말 즐거웠다. 많이 웃었다. 많이 마셨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해(2001년)에 열린 발굴에는 일본에 있는 조선대학교의 학생들도 참가하였고, 2003년 즈음까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아시아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느껴지는 풍경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납치문제(2002년)를 분기점으로 다시 일본의 배외주의는 거세졌고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 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자이니치를 겨눈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눈앞의 친구의 일로, 함께 그 일을 경험해 온 젊은이들. 그들이 함께 어른이 되어 친구로서 서로 용기를 계속 북돋아주는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 관계를 통해 그들은 동아시아의 한 걸음 앞선 미래를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들은 또다시 내셔널리즘과 증오범죄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그 바탕에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의 15년을 지켜봐 온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이 영화와 함께 앞으로 두 곳으로의 여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나는 전국 순회 상영. 자동차에 스크린과 상영기자재를 싣고, 3월부터 5월까지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沖縄)의 요나구니(与那国)까지 순회 상영을 할 계획이다. 영화와 함께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일본 전국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영화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분들의 도움으로 얼마 전에 한글과 영어 자막 버전이 만들어졌다. 아시아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 동아시아에서의 노력을 널리 공유하고 싶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또 하나의 여정은 유골을 반환하는 여정이다. 우리들이 과거에 슈마리나에서 발굴한 유골과 아사지노에서 발굴한 유골의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선반도의 38도선 북쪽에 고향이 있는 희생자들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오키나와 전(沖縄戦)에서 희생된 조선반도 출신자들의 유골도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그 행방을 모른다. 과거 워크숍에 함께 했던 젊은이들은 지금 그 유골이, 자신들의 손으로 발굴한 분들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땅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 또 하나의 너른 아시아로 떠나는 여행에 나도 카메라를 메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족조사



아사지노 발굴

[작품소개]

일본·한국·자이니치 코리안 젊은이들의 15년 발자취를 그린 「할아버지를 파다」
1997년 홋카이도 슈마리나이에 일본·한국·자이니치 코리안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부조리한 죽음을 강요당한 사람들의 유골에 깃들어 있는 잃어버린 목숨이
오늘을 살아가는 인간을 잇는다.
전쟁의 시대, 식민지의 시대를 넘어, 미래를 향해.

제1장 슈마리나이(朱鞠内)(114분)
전쟁 시기 댐 공사와 철도 공사 희생자의 유골발굴

제2장 아사지노(淺茅野)(98분)
구 육군 비행장 건설 공사 희생자의 유골발굴

제3장 유족(109분)
유족과 강제노동 피해자를 찾아 유골을 반환하는 젊은이들의 여정

제4장 미래를 향해(121분)
국경을 넘어 살아갈 곳을 찾아가는 젊은이들

제5장 우리들(107분)
2012년 여름, 홋카이도 아시베츠(芦別)탄광 희생자들의 유골발굴

감독: 가게야마 아사코(影山あさ子)-후지모토 유키히사(藤本幸久)

기획·제작·저작권: 모리노에이가사(森の映画社), 2013년

전5장/9시간9분/HDV/ stereo/4:3

자막: 일본어/한글/영어

<http://sasanobohyo.blogspot.jp/>

<https://www.facebook.com/sasanobohyo>

일본어 제목: 「笹の墓標」

한글 제목: 「할아버지를 파다」

영어 제목: 「Sasa no bohyo: Beneath the Bamboo Grass Tombs」

가게야마 아사코(影山あさ子) 프로필

영화감독. 1963년 효고(兵庫)현 고베(神戸)시 출생. 인터뷰어로 참가한 영화 「Marines Go Home」(2005년)의 제작에 참여한 것이 첫 영화 만들기. 그 뒤 「아메리카-전쟁하는 나라의 사람들」, 「One Shot One Kill」, 「러브 오키나와(沖縄)@헤노코(辺野古)·다카에(高江)·후텐마(普天間)」 등, 후지모토 감독과 2인 3각으로 분투 중. 홋카이도에서의 유골발굴에는 1997년부터 참가. 이 영화(“할아버지를 파다”)를 만들기 위해 영화감독이 되었다. 홋카이도에서 후쿠시마(福島), 오키나와로 뛰어다니며 바쁘게 보내고 있다. 홋카이도 삿포로(札幌)시 거주.